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1, 목시록 2, 어휘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목시문학, 특히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 하나는 상징적으로 소통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의 실제 사건과 인물을 의미하며,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사소통과 은유적 언어를 통해 기술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상징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마도 너무 단순한 방법일 수 있지만 계시록과 상징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보다도 상징 자체와 그 윤곽,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에 의해 전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 자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상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상징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가리키는가?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뿔이 달려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은 대개 악, 혼돈, 파괴와 같은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상징이 전달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파멸과 악과 혼돈을 상징하는 짐승의 상징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아마도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1세기 독자라면 그것이 로마 제국이거나 아마도 현재 보좌에 앉아 있는 황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메뚜기에 대한 묘사를 보았습니다. 그 상징은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메뚜기이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 남자의 얼굴, 여자의 머리카락,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찌르고 고통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즉, 메뚜기의 상징인 메뚜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학살과 파괴,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아이디어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힘과 힘과 힘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내 생각에는 요한계시록 9장에 메뚜기가

악마적인 존재들을 상징하거나 언급하는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마귀와 사탄의 존재들이 자주 등장하는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아마도 메뚜기들이 마귀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증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반대하는 자를 삼키느니라. 그러나 그들 자신도 11장의 끝 부분이나 11장의 이 부분에 나오는 두 증인의 이야기 끝 부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키워진다. 이 두 증인의 상징인 이 두 상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특히 갈등에 직면했을 때 증인과 진실, 진실의 증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두 증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마도 그들은 로마 제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증인 역할을 하는 교회,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예입니다. 즉, 상징 자체를 설명하고, 상징이 무엇인지, 둘째,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는 기호가 가리키는 세 번째 항목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상징에 대해 좀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도 상징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숫자는 3년 반이든, 42개월이든, 1000년이든 그것이 전달하는 수학적 정보나 숫자가 전달하는 시간적 정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는 그들이 전달하는 수학적 또는 시간적 정보보다는 상징적 가치, 즉 그것이 전달하는 상징적 정보를 위해 존재합니다.

다소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면, 요한계시록에 편재하는 숫자 중 하나는 숫자 7입니다. 7,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듯이 7은 완벽함 또는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일곱 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주기는 인과 나팔과 대접과 함께 문자 그대로 일곱 재앙의 수를 나타내기에는 많지 않지만 숫자 7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아니면 또 다른 하나, 숫자 12. 12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12라는 숫자로 나타나거나 때로는 배수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44는 12 곱하기 12 또는 144,000입니다. 이 숫자는 몇 번 나타나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며 위대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또는 많은 양, 또는 다시 완료. 열두라는 숫자는 열두 지파 또는 열두 사도를 모델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44,000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수를 의미할 것입니다.

또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종종 12의 배수, 144규빗 또는 그와 비슷한 것, 즉 12,000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은 숫자 12를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2입니다.

그래서 12는 그것이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만큼이나 수학적 가치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3년 반은 이 숫자를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특히 11, 12, 13장에서 책 중앙에 3년 반이 두 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3년 반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그대로의 시간적인 시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365일로 이루어진 3년 반, 그리고 그 반이 반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문자 그대로의 기간이 아니라 3.5일은 아마도 짧고 강렬한 기간에 대한 개념을 상징하지만 그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는 1년이고, 2년은 3년이고, 그 다음에는 반년이 됩니다.

잘립니다. 일이 굴러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숫자 7의 절반인데, 이는 다시 완성되지 못한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 반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의 기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시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극심한 박해와 반대의 시대이지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지고 짧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 나는 또한 삼년 반에 대한 언급은 일곱으로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삼년 반, 즉 42개월 또는 1260일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든 명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1세기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교회의 존재는 때로 격동의 시기, 즉 세상의 제국들과 격렬한 반대와 갈등의 시기가 되겠지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인류를 심판하고 그의 신실한 백성을 옹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 일은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 천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수학적 가치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20장과 같은 텍스트에서는 전달되는 시간적 정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20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1000년, 즉 360일 정도의 기간을 언급하는 대신에 다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완전성 또는 완전하거나 완전한 기간이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시간적 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숫자조차도 그것이 전달하는 상징적 정보를 위해 상징적으로 보아야 하며, 수학적 또는 시간적 가치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나는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두 가지 상징을 해석하신 방식과 일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에게 책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소개하거나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환상, 즉 인자가 등대를 들고 있는 환상을 보고,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인 19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께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1장의 이미지 중 두 개를 해석합니다. 이번에도 요한은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등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해석하십니다. 20절에서 그는 요한이 본 환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일곱 별의 비밀을 말합니다.

인자를 보시며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를 보시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이니라 일곱 별은 하나님의 사자니라 일곱 교회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은 문자적인 별이 아니라 상징하며, 요한이 본 별은 일곱 교회에 속한 일곱 천사를 상징하며, 그가 환상에서 본 일곱 촛대는 일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아십니까? 문자 그대로 등불이지만 교회를 상징하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실제 사건이나 인물, 장소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상징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요한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구약성경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신약성서 저자가 구약 본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몇 가지 예도 논의할 것입니다. 집어 들고 구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포함한 요한의 언어는 문자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계시록을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 즉 신약성서의 다른 책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국의 지배 시대, 즉 로마 제국이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대응하여 기록되었으며, 로마도 등장하지만 로마는 신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국에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은 로마에 빚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잘 알려진 팩스 로마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그리스-로마 통치 전체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 로마 통치의 맥락에서 로마는 콤플렉스와 협력하여 정치, 경제, 종교 간의 복잡한 관계를 옹호했습니다. 종교와 정치, 종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오늘날의 일부 사회와는 달리 이 세 가지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 종교 체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에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이교 신들에 대한 숭배 뿐만 아니라 황제 그 자체 를 숭배합니다 .

로마 종교 체계의 일부에는 황제를 국민 의 안녕을 책임지고 로마 제국이 신민을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숭배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의 정치 및 경제 생활에 참여하려면 종종 로마의 종교 제도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것을 이교 신들과 이교 신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황제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우상 숭배로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독점적인 예배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John은 이 상황을 다루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몇 가지 가능한 대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우상 숭배적인 종교 관습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참여를 거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 결과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문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억압이나 박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박해는 반드시 황제 자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로마의 환심을 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다양한 공동체의 지역 엘리트와 지역 통치자들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로마와의 계약.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배은망덕하게 여기고 심지어 로마와 로마의 정치, 경제, 종교 체제에 대한 반란으로 여겼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선택하여 어떻게든 로마 제도, 심지어 우상 숭배 제도에 대한 포함과 참여를 정당화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으로 인해 압제와 박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고 아마도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한 타협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대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편지, 2장과 3장의 일곱 편지를 읽을 때, 그 중 오직 두 교회만이 어떤 종류의 억압과 박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나머지 다섯 명은 기본적으로 모두 로마 세계에 너무 갇혀 있고 얽매어 있어서 증인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미 증거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억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문학이 아니라, 로마 통치와 로마 종교 체계에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의 편지를 다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요한 자신이 말한 몇 가지 것, 특히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원칙은 요한이 의도할 수 없거나 그의 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은 아마도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편지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편지는 독자의 특정 상황에 반응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편지로서 아마도 요한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고 요한이 의도했던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이 21세기 기술 현실을 다루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책을 원래 의도했던 독자의 손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은 22장에서 끝나는데, 이 책이 최초의 독자들에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암시하는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시작하여, 이제 책의 맨 끝 부분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으며, 요한이 이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독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결론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읽고 답변을 받으세요. 10절, 흥미롭게도 이것은 다니엘이 하라고 지시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인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때가 가까웠으니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사건은 이미 성취되고 있거나 성취되기 직전이다.

이것은 그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요한은 일부 후세대를 위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편지의 형태로 종말과 예언을 쓰고 있는데, 이는 그의 동시대인과 독자들의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일반적인 오해를 뒤집기 위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현재 성취되고 펼쳐지고 있는 책이며 20세기와 21세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1세기 독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요한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한 사람들은 1세기의 독자와 작가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세기 로마제국의 맥락에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1세기 독자들에게 요한이 전달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봉함할 책이 아니라 1세기 독자들 가운데서 이해하고 읽고 말하고 성취할 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특정 부분을 컴퓨터 칩이나 열핵전쟁, 중국 또는 다른 국가와 동일시하는 해석을 들을 때 즉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질문과 위험 신호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아마도 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다른 모든 새로운 책, 다른 모든 신약성서의 책을 이해하는 것을 옹호하려는 학생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나에게 흥미롭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계시록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지 곧바로 묻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첫째, 죄송하지만 넷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상징주의에 비추어 해석하고 계시록이 상징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래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해석한다. 세 번째, 요한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을 해석과 1세기 청중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해석을 인정하는 것은 아마도 거부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무보다 숲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주요 메시지를 놓칠 정도로 세부사항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8장과 9장의 일곱 대접, 8장과 9장의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어떤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너무 빠져서 대접과 나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앙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과 매우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그러므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기록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은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어떤 모습일 것인지가 아닙니다.

20세기, 21세기 통역사들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것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어떤 사건들이 그것들을 성취할 것인지 묻는 대신에,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과 같은 방식인 것 같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악하고 경건치 아니하며 포악한 나라를 택하시고 첫 출애굽에서 그 백성을 그 나라에서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사악하고 압제적인 나라를 심판하시고 첫 출애굽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그 재앙과 심판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니 나무에 너무 몰두하여 숲을 잃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구성하는 숲 전체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째, 신약성서의 다른 어떤 책보다 좋은 조언은 좋은 주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이나 단순한 주석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일종의 소개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출판한 Richard Baucom의 요한계시록 신학이라는 작품이 내가 발견한 요한계시록 단행본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있게 계시록 읽기(Reading Revelation Responsically)라는 Michael Gorman의 최근 책은 책 읽기와 피해야 할 몇 가지 함정에 대한 매우 유용한 소개입니다. 신약성서의 새로운 국제 주석에서 로버트 마운트(Robert Mounts)가 쓴 중간 수준의 주석은 본문에 대한 매우 유용한 지침이자 건전한 분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고급 주석도 매우 도움이 되지만,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유용한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을 읽으려면 본문과 씨름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주석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여섯 번째 원칙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상당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단적인 주장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듣고 싶지 않거나 내가 옳다는 태도를 가질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요한계시록이 책의 종류와 취급 방식의 다양성, 계시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한 위의 틀 내에서 어떤 해석이든 겸손하게 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에는 일곱 번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섯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섯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장르비평은 해석에 있어 중요하고 가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각 책에는 고유한 구조와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르 비평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텍스트의 올바른 질문을 통해 우리는 텍스트에서 올바른 정보를 기대하고 의도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성서와 구약성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학적 장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어떤 종류의 문학적 형식과 문학적 장르로 구성했는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 책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장르 비평을 통해 우리는 책 전체와 관련된 매우 광범위한 질문을 하고,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책의 장르가 우리가 묻는 질문의 종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질문했습니다. 해석해 보세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범위를 좁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 몇 세션에서는 텍스트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서로 다른 것을 초월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중 일부는 다양한 문학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성경 본문의 어휘적, 의미론적 분석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본문 자체, 그 단어, 문법, 어휘 항목의 의미 또는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는 단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본문은 현대 세계의 언어와는 매우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문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은 해석학 교과서나 성경 해석 교과서에서 종종 단어 연구라고 부르거나 더 고급 용어, 어휘 또는 의미 분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우리 대부분, 특히 영어를 구사하지만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번역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가 반드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단어와 의미가 일치하거나 겹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즉,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번역에서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포착될 수도 있으므로 성경 본문에서 찾은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어 및 단어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관찰을 한 다음 이것이 어휘 분석이나 단어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인가? 단어는 기본적으로 의미의 영역이나 의미의 범위를 표시하는 상징입니다. 즉,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언어는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단일 의미에 대해 하나의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언어는 거의 관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어는 의미 분야를 표시하므로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지만 단어는 하나의 단일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 사용자의 경우 트렁크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십시오. 영어 단어 트렁크(trunk)는 코끼리 코의 구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밑부분, 나무의 줄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뒷칸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그것을 자동차의 시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트렁크는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뒷칸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때때로 침대 발치에 놓아두는 큰 상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옷이나 기타 물건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트렁크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인 트렁크(trunk)에도 표시가 있거나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그 의미 중 하나만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장난이나 아이러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면, 단어가 사용되는 곳마다 이러한 의미 중 하나 이상 또는 전부를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장에서 트렁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모든 의미를 동시에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문맥은 내가 그 중 하나로 범위를

좁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내가 동물원과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트렁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아마도 트렁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코끼리의 일부. 따라서 문맥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 중 하나를 제한합니다. 문맥에서 해당 의미 중 하나로 단어를 제한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단어의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영어입니다. 30년 전, 40년, 50년 전에 영어로 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누군가를 행복하거나 유쾌하다고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중 하나인 *Don, We Now Are Gay Apparel*도 명랑함과 행복함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현대 영어에서는 그것과는 아주 아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의 성적 취향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때로는 변경 사항이 사소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제시한 예처럼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소 중요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점에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과거에 의미했던 것과 단어가 변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의미가 임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어는 단순히 모든 사용자가 결정한 의미와 사용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시점의 언어 사용자 그룹에게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번째 원칙은 단어가 다른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의어라고 부릅니다. 동의어는 의미가 겹치는 두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중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두 개의 원이 교차하는 것처럼 단어의 의미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어는 의미 면에서 중복되지만 여전히 고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단어가 하위어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즉, 한 단어는 더 넓은 단어이고 다른 단어는 더 좁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더 넓은 용어이고 하위어는 장미일 수 있습니다. 장미는 꽃의 일종이지만 매우 구체적인 꽃의 하위명입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서로 연관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단어는 항상 고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연관되어 겹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원칙은 단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주요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합산하는 것 이상입니다. 단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주요 전달자나 전달자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대신, 단어들이 결합되어 절을 만듭니다.

절이 결합되어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결합되어 단락이 만들어집니다. 단락을 결합하여 전체 담론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의미를 전달하는 일차적인 전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넓은 맥락에서 기능합니다. 성경이 당시의 일상 언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특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은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그리스어를 특별한 언어, 성경적 언어, 언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한 학자는 아주 초기에 이것을 성령 언어로 불렀습니다. 즉,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 특히 때로는 히브리어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고 특별히 맞춤형된 특별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전달된 구약과 신약이 당시의 공통 언어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세기와 그 무렵의 파피루스와 기타 문학 유물의 많은 발견은 신약성서의 그리스어가 다른 아닌 1세기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평범하며 일상적인 언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종종 그것을 코이네 그리스어 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 특별한 유형의 그리스어나 특화된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영감, 즉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 이것을 언어가 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영감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부자연스럽거나 평범하지 않거나 특수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그 시대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칙은 단어의 의미가 지시 대상이나 지시 대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배에 관해 말하고 있고 타이타닉호와 1912년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배라는 단어가 타이타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라는 단어는 매우 단순하게 말하면 매우 큰 배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타이타닉을 언급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배라는 단어가 타이타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성경 본문을 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구약 본문에서 다윗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왕이라는 단어가 다윗 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멜렉(melech) 은 왕이나 통치자를 의미하지만 특정 문맥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 언급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어 연구나 어휘 분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나는 대부분의 통역사가 단어 연구나 어휘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동의하는 세 가지 단계를 간단히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명히 단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다루고 있는 본문의 모든 단어에 대해 단어 연구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단어인지,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옴(yom) 또는 날(day)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는지에 따라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면 단어가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희귀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많은 단어가 단 한 번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 안팎에서 비교할 수 있는 용법이 많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거나 한 번만 나오는 단어, 중요해 보이는 단어, 즉 본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 또는 저자가 그 단어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학적일 수도 있는 단어들, 바울 서신에 나오는 화해나 칭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 등 신학적 의미를 갖는 단어들입니다. 이는 분명히 영어 번역이 번역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더 자세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단어에 관해 말한 것과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의 영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의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 모두에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용어 색인과 같은 도구는 단순히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든 예를 보고,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저자가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유용한 도구는 단어입니다. 학습 도구 또는 신학 사전. 더 최근이고 영어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는 Willem van Gemeren 이 편집한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와 같은 도구일 것입니다 .

그리고 신약성경에 대응하는 신국제신약신학사전(Colin Brown이 편찬)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두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철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전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신학적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영어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읽으면 도움이 되는 다른 많은 어휘와 도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것은 Vine의 구약 및 신약 단어 사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귀중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과 언어적 원리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신 단어 학습 도구와 비교하여 확인해 보세요 . 따라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용 가능한 가능성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의미와 가능성의 범위 중에서 저자가 이 맥락에서 의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맥락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가능성 중에서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 중 하나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가능한 이중 참여나 이중 의미, 의도적인 모호함, 말장난, 아이러니를 제외하면 저자가 종종 두 가지 의미를 의도하는 그런 종류의 경우, 그 밖의 맥락은 일반적으로 가능성을 하나의 의미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맥락에서 이 단어가 무엇을 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과 3절에서 예수님이 밤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8절에서도 이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장과 3절만 읽어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 바리새인 중 하나인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내 생각에 어떤 번역판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위 또는 다시를 의미할 수 있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단지 John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는 모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John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하는 일의 예일 수

있습니까? 네 번째 복음을 보세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중 의미를 갖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는 아마도 둘 다를 의미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둘 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 탄생은 위로부터 나와야 하며 니고데모가 말한 육체적 탄생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가? 계속해서 다음에 논의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도구, 즉 신국제구약신학사전과 주석, 신국제신약신학사전에도 의존하고 싶지만 주석도 찾기 좋은 곳입니다. 단어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어 연구와 어휘 분석을 논의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논의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며, 많은 작품에서는 다양한 오류나 피해야 할 다양한 것들을 요약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단어 연구를 할 때 피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성경 학생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연구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거기서 멈추고 단어 의미에 대해 논평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기가 더 쉬울 것이므로 그 중 몇 가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역사나 어원에 영향을 받거나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어원적 오류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한 단어가 역사적으로 의미했던 것이나 그 단어의 기원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 입니다. 마치 그것이 다른 시기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간.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어가 원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자가 원래 의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과거 역사적으로나 그 기원에서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당시의 의미입니다. 특정 시점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작가와 독자들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므로 특히 당신이 다른 작품을 읽고 의지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의 근본 의미가 다음과 같은 진술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든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 뿌리적 또는 어원적 오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언어 사용자는 단어가 과거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심지어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의미하는 바와 오늘날 의사소통하는 방식뿐입니다. 그렇다면 언어 사용자는 특정 시점에 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학자들은 이를 통시적 접근 방식이 아닌 공시적 접근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시적 접근 방식은 단어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 도움이 되고 흥미롭지만, 공시적 접근 방식은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단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당신이 다루고 있는 특정 기간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동시성이 통시성, 즉 그 단어가 역사적으로 의미했던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주 언급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에 주목한 신약성서의 한 예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ekklesia) 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Ekklesia)는 ~에서 또는 ~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 ek와 부르다를 의미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인 클레시아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문화와 위치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과 분리된 자들의 집단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적어도 신약 시대에는 그 단어가 단순히 모임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로마 세계의 다양한 유형의 비종교적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부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래 그것이 그 단어의 구성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시대에 의미했던 것보다 그 단어의 뿌리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저자들이 글을 쓰고 있던 시기. 그러므로 단어의 역사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단어가 역사적으로 의미했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이 주어진 시점에서, 그 맥락에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작품, 특히 이 단어의 근본 의미 또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했던 단어에서 유래한 것과 같은 말을 하는 대중적인 수준의 작품에 유의하세요. 주어진 맥락에서. 둘째,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나는 종종 이것을 덤프 트럭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어가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여 문맥에서 단어의 사용을 뒷받침하고 거기에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특히 대중적인 수준에서 남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텍스트에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텍스트에 나타날 때마다 트렁크라는 단어가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본 것처럼 맥락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 의미할 수 있는 특정 것 중 하나로 해당 의미를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단어가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 의미의 범위 또는 영역을 취하여 특정 위치에 있는 단어의 의미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론적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단어에 그것이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다.

이 세션의 마지막 한 가지,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몇 가지 더 논의하고 단어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관찰을 할 것입니다. 단어를 본문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개념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신학적 개념과 의미는 종종 연관된 단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발견됩니다. 즉,

내가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와 연관시키는 모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력, 조직 구조, 장로와 집사, 목사, 예배와 복음화에 있어서의 기능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 위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 단어는 그것이 가리키는 더 넓은 신학적 개념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태의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싶다면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리스어로 왕국을 의미하는 바실레이아 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외에 자신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 그러므로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또는 단어를 더 넓은 맥락에서 발견되고 그 단어와 연관될 수 있는 신학적 개념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피해야 할 몇 가지 오류를 더 강조하고 단어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헬라어 단어 육체를 살펴보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에 대한 어휘 분석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구절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